

육계 자조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이제 국내 육계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지난 8월 9일 축산신문사에서 주최한 “육계의 무자조금 거출방안 좌담회”에서 육계농가에서 자조금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제시와 더불어 자조금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보고 우리 육계인의 높은 사명감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협조하고 단결할 때 가능하다.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사고방식과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많은 산업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육계산업은 생물을 다루는 산업이므로 그 구성원 모두의 단결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육류 소비패턴이 Red meat(적색육)에서 닭고기와 같은 White meat(백색육)로 바뀌고 있고, 국내 닭고기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앞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 닭고기 소비확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닭고기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꾸준히 어필하는 홍보가 필요한데, 이 모두가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재원이 바로 “육계의무자조금”이다.

1992년부터 추진한 임의 양계자조금 사업은

양계농가의 무관심과 무임승차로 인해 자조금 거출실적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곧 태동할 육계의무자조금은 앞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육계의무자조금 추진현황 및 계획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사무를 준비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직인 육계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 위원회를 2004년 11월 15일 처음으로 개최하여 제2차 동 위원회를 개최한 2005년 8월 23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당초 육계의무자조금 거출을 2005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준비 미비로 2006년 1월로 지연되었다.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육계농가와 육계사육수수를 시·군을 통해 2005년 4월 30일에 완료했으며, 조사 결과 육계농가(500수 이상 사육농가)수는 4,204명이고, 육계사육수수는 143백만수였다.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76개로 확정했으며, 선거구별 대의원 안배는 육계농가와 육계사육수수 각각 50%씩 적용하여 150명을 배분했다. 선거구

별로 육계농가 과반수 이상 또는 육계사육수수 3분의 2이상 사육하는 육계농가가 대의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선거구안에 주소나 또는 사업장을 둔 육계농가로 한정되어 있으며, 두 곳 중에서 한 곳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 대의원 후보자 등록은 2005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도록 하였고, 선거일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지역별로 순회하며 실시된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들로 대의원회가 구성되며, 대의원회에서는 육계자조금 의무거출 여부 투표를 실시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명실상부한 육계의무자조금 제도가 태동하는 것이다.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는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해 육계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육계의무자조금 거출은 현행법상 도계장에서 도계 의뢰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런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에 육계농가에서 거출금 납부를 거절할 경우에는 도계장에서는 도계를 거부할 수 있다.

2005년 8월 23일 육계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육계의 판매가격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육계, 삼계, 종계(원종계, 종계), 기타



지난 8월 23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육계자조활동자금 준비위원회에서는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해 논의했다.

(토종닭 등) 4개로 구분하여 거출금을 차등하여 납부키로 협의했는데, 품목별 거출단가는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거출금의 한도는 육계 거래가격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2. 육계의무자조금 운용 방안

자조금 집행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농림부 장관에게 자조활동자금사업 계획서를 승인을 득한 이후에 할 수 있다.

육계의무자조금의 용도는 닭고기 소비홍보, 육계농가·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육계의 자율적 수급안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축종과 같이 닭고기 우수성 홍보에 상당 금액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며, 육계는 생산주기가 짧아 수급안정에도 때에 따라 많은 금액이 사용될 것이다.

닭고기 우수성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닭고기 부위 중 비 선호부위인 가슴살에 대한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닭고기의 부위별 소비 균형은 물론 닭고기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서 돼지고기 부위 중 소비가 안 되어 골치가 아팠던 전지·후지의 소비가 TV광고 등 꾸준한 홍보로 전지·후지 소비 활성화가 되어 부위별 소비 균형도 달성하고, 가격도 상당히 올라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닭고기 가슴살을 먹고 멋진 근육을 만들었다는 텔런트들이 많다. 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텔런트 배용준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육계의 자율적인 수급안정 분야에는 도태와 데이터 베이스 사업에 투자될 것이다.

육계의 수급안정을 위해 육계 수매, 종계도태, 병아리 및 종란 폐기 등과 같은 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육계수매는 육계의무자조금 규모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수급안정 효과도 적어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발생으로 육계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육계를 수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3년 11월부터 육용원종계 쿼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 5월부터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7월에 많은 양의 닭고기가 수입되었고,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산 닭고기도 국내시장의 빗장이 풀려 닭고기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계절적인 소비패턴과 일시적인 육

계의 공급량 편중으로 육계의 수급불안이 있기 마련이다. 육계의 수급 불안정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될 것이나 가급적 사후적인 대책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육계가격이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 종계(원종계 포함) 도태를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육계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종란 및 병아리 감축 또는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 도태 또는 폐기 사업은 매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자조금이 집행될 것이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예산으로 지원되어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 사업은 내년부터는 육계의무자조금으로 대체되어 꾸준히 투자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종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종계농가와 종계사별로 고유코드를 부여했으며, 금년에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계농가의 입식과 도태여부를 실제 현지 확인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현재 시점의 종계 주령별 사육수수 등 모든 정보를 육계농가가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무허가 종계장에는 근본적으로 종계가 분양될 수 없으며, 종계의 제시기에 도태여부 파악이 가능해 종계를 환우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는 근절될 것이다.

종계관련협의회에서는 부화장에서 입란과 병아리 발생 실적을 주별로 데이터에 입력할 수 있

도록 정확한 정보를 대한양계협회에 보고토록 협의함에 따라 육계는 물론 백세미 및 토종닭까지 포함하여 주별로 파악이 가능해져 단기간의 닭고기 공급량 예측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보고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현지 확인을 위한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조금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3. 맺는말

DDA협상 진전,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로 국가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여하는 기능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농가 스스로 시장원리 틀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육계농가 모두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어려운 난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발점이 바로 '육계의 무자조금 거출에 모든 육계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육계산업은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맛있는 국내산 냉장 닭고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육계인의 몫이다. 육계인 모두가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홍보맨이 되어야 하고, 국내산 닭고기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서 닭고기의 우수성과 요리개발 등을 꾸준히 홍보하고 개발해야 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또한 시기적으로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점이 도래되고 있으므로 육계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C



조 병 임 사무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자조금

육계산업의 새로운 활로입니다.

자조금 사업은 육계인 스스로 국내 육계산업의 안정 및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국내 최초로 자조금사업이 출범된 양돈산업의 경우 숙원한안이 돼왔던 특정정부의 소비편중 현상이 점차 해소되는 등 이미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조금사업에 대한 육계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곧 국내 육계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육계공동자조활동자금 준비위원회에서도 육계자조금사업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계인 여러분이 거출해 주신 자조금은...

육계인 여러분에 의해 운영되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은 물론 품질보증을 위한 각종 사업진행에 투명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육계공동자조활동자금준비위원회